

# 46<sup>회</sup>

---

문화·예술 분야

## News Clipping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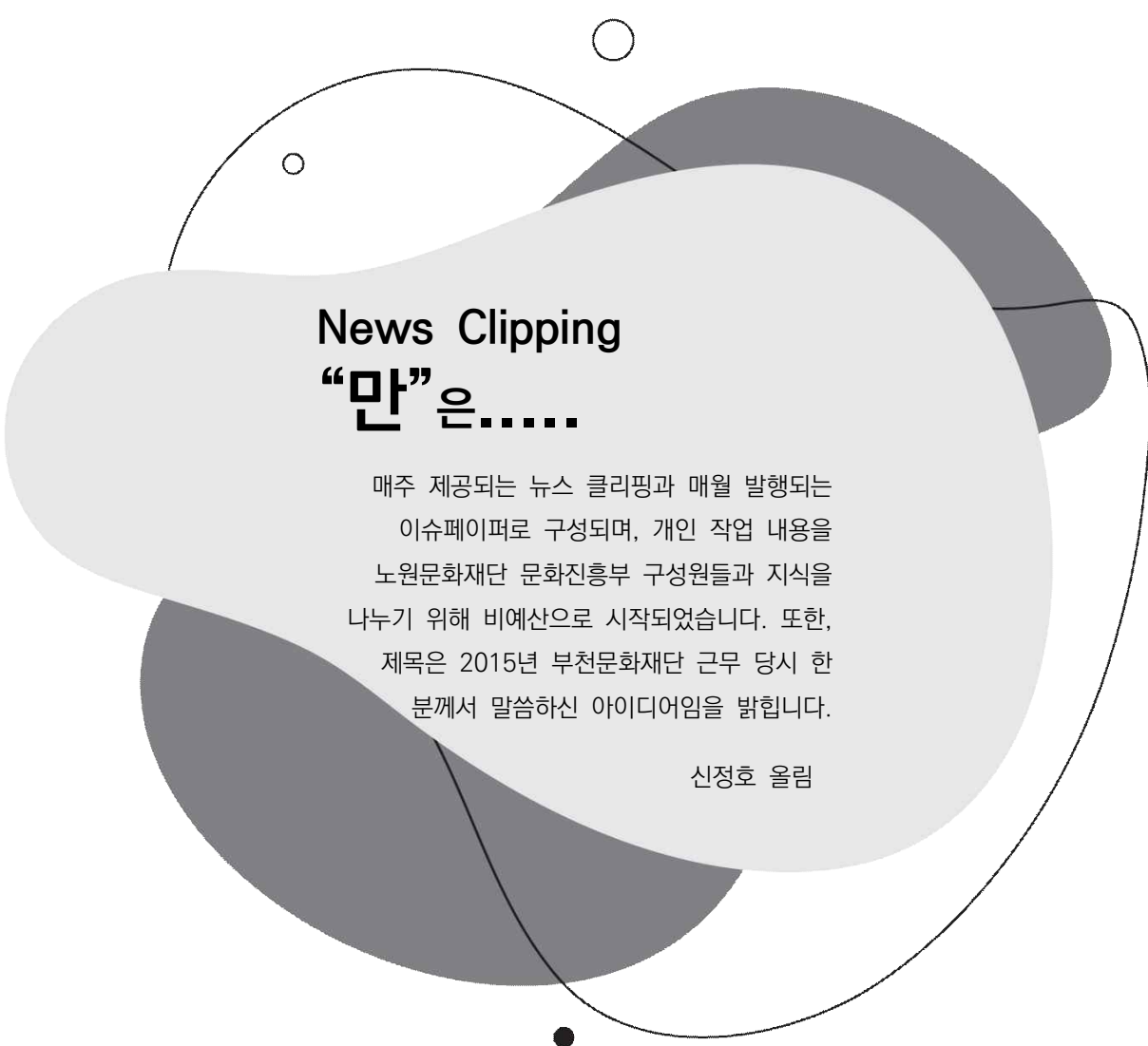
2026.03.09.

---

'만 시간의 법칙'을 의미하는 '10000(만)'의 News Clipping은  
매주 문화예술 분야 주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0000

---



## News Clipping “만”은.....

매주 제공되는 뉴스 클리핑과 매월 발행되는  
이슈페이퍼로 구성되며, 개인 작업 내용을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구성원들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 비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목은 2015년 부천문화재단 근무 당시 한  
분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임을 밝힙니다.

신정호 올림

〈2026년〉

(제46호) 숫자는 커졌지만 삶은 더 풍요로워졌는가 ..... 2

(제45호) 확장의 시대를 넘어, 구조를 완성할 시간 ..... 9

(제44호) 속도는 빨라졌다고 하지만, 방향은 선명한가 ..... 16

(제43호) 성과를 소비하는 문화정책에서, 기반을 축적하는 문화정책으로의 전환 ..... 23

(제42호) 성과 이후의 문화정책, 무엇을 재설계할 것인가 ..... 30

(제41호) 확산은 시작됐다는 확산, 그러나 지속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 37

〈2025년〉

(제40호) 다양한 사회 변화 신호 속에서 드러나는 지속가능성의 조건 ..... 42

(제39호) 예산 확대의 시대에서 생태 전환의 시대로 ..... 44

(제38호)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은 재정 구조 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 47

(제37호) AI에 쏠린 국가, 문화와 돌봄은 어디로 가는가 ..... 52

(제36호) 문화균형발전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점 ..... 57

(제35호) 균형 잃은 문화정책, 지속 가능한 문화국가로 가는 길을 다시 묻다 ..... 62

(제34호) 균형과 지속가능성의 재정립 ..... 66

(제33호) 지역이 무너진 문화정책, 균형과 공정으로 다시 세워야 ..... 70

(제32호) 문화재정 긴축과 공공성 약화 속 문화 생태계 위기 ..... 75

(제31호) 재정·인구·문화 위기 속 지역성과 공동체 중심 문화정책·산업 혁신 필요 ..... 79

(제30호) 한류 성과에도 지속성 위기, 격차·연대 부족 속 균형 문화정책 요구 ..... 84

(제29호) 문화산업 확장 속 재정위기·운영 불투명·저작권 보호 등 지속가능성 과제 ..... 88

(제28호) 문화·경제·사회 전반에서 경쟁력 강화·격차 해소·지속가능 발전·포용적 문화 확산 ..... 92

(제27호) 정부 조직 개편·K컬처 확산·지역재생·AI·복지 강화 등 미래 대응 위한 정책 전환 본격화 ..... 96

(제26호) 지방문화 재정·제도 강화, K-컬처 확산·창작 지원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문화 추구 ..... 101

(제25호) 한국 문화예술 정책과 산업 구조의 전환기 ..... 106

(제24호) K컬처 300조 목표는 재정·인프라 부족과 예술인 지원 미흡으로 공허한 구호될 위험 ..... 110

(제23호) 한류 성장과 문화산업 활황 속 사회통합·지속가능성 도전 .....	114
(제22호) 문화권리 확대와 지역균형, 창작 생태계 전환을 위한 문화정책 재구조화 .....	118
(제21호) 한국 사회의 다층적 도전과 문화·도시 재생의 전환점 .....	122
(제20호) 문화·예술·기술 융합과 지역 활성화 속 예산 효율·공공성·지속가능성 강화 요구 증가 .....	126
(제19호) 문화예술 예산 갈등과 사회문제 심화 속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문화 혁신 필요 .....	130
(제18호) 공공·문화·지역의 균형 발전과 포용사회 전환 위한 재정·제도 혁신 본격화 .....	134
(제17호) 재정 위기 속 지역소멸 대응과 문화 분권 실현 간 균형 과제 .....	138
(제16호) 지역문화재단 확산 속 운영 투명성 강화 및 정부 정책 연계 .....	142
(제15호) 사회적 포용과 지역 균형발전, 창의적 자립 기반 구축 .....	146
(제14호) 기후위기·지역 균형·문화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모색 .....	150
(제13호) 대선 문화정책 한계 속 경기침체·청년불안·고령사회·AI·문화재생 부각 .....	154
(제12호) 자립을 넘어 공동체 연립, 지역문화 확산과 공공문화 이슈 대두 .....	157
(제11호) 사회 변화 속 문화예술, 글로벌 진출과 지역 활성화 모색 .....	160
(제10호)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문화 인프라 확충, AI·예술 융합을 통해 경제·사회 구조 전환 .....	163
(제09호) 문화예산 감소, 인구 소멸 우려 속 공연·전시 해외 호평 .....	166
(제08호) AI의 등장과 21대 대선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	168
(제07호)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고 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방안 모색 .....	171
(제06호) 티켓 플레이션 우려 속 공연시장 성장, 국제 미술시장 위축, 1인 가구 증가로 문화복지 고민 깊어지는 지자체 ·173	
(제05호) 초 개인화·AI 확산·경제 위기 속에서 역할 재정립과 지속가능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구받는 문화예술계 ...	176
(제04호)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교육·예술 복지 강화와 공간 활용, 축제 예산 문제 등 논의 .....	178
(제03호)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문화재단, 신뢰와 지속가능성 자기 고민 필요 .....	180
(제02호) '문화변화'에 직면하게 있는 지역문화 예술계 .....	182
(제01호) '문화한국 2035' 발표 속 문화예술 지원 확대 및 제도 개편 추진, 그러나 재정난으로 축제 중단 위기 .....	184

(제46호)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요약 정리

■ 지난주 10대 핵심 키워드

구분	핵심 키워드	의미	구분	핵심 키워드	의미
산업	콘텐츠 관광	영화·K콘텐츠 기반 관광 증가	유통	미술시장 대중화	아트마켓·한복제 등 새로운 유통 실험
	초대형 IP 집중	BTS 등 메가 콘텐츠 중심 시장 집중	제도	공모지원 구조	공모 중심 예술지원 구조 논쟁
	팬덤경제	웹툰·공연 등 코어팬덤 중심 구조		문화기관 인사 논란	전문성·정치성 갈등 확대
정책	문화도시 플랫폼	문화산업·도시 전략 결합	사회	관계정책	커뮤니티·외로움 대응 정책
교육	AI 시대 창의교육	예술교육 중요성 확대		여가 양극화	취미 소비 증가 vs 수동형 여가

■ 핵심 쟁점

- ① 콘텐츠 경제 확장 vs 지역 체류 구조 취약 → **콘텐츠, 관광, 체류,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취약**  
 ☞ 촬영지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 숙박·로컬 콘텐츠 결합 전략 필요

영화·K콘텐츠의 성공은 관광 수율을 크게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영화 흥행 이후 영월 청령포 관광객이 5배 증가하며 콘텐츠 관광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 소비 구조는 여전히 당일 방문형 소비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인다.

- ② 문화산업 성장 속 ‘메가 콘텐츠 집중’ 심화 → **메가 IP 중심 문화산업 구조 형성**

☞ 중소 공연과 독립 창작 공연은 관객 선택 부담과 티켓 가격 상승으로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어

2025년 공연시장은 티켓 653만 장·매출 4,615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BTS 공연 매출 2조 원·회당 경제효과 1.2조 원 등 초대형 콘텐츠 중심 집중이 심화되며 중소·독립 공연의 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 ③ 웹툰·콘텐츠 시장의 팬덤화 → **대중시장 → 팬덤시장 구조로 이동**

☞ 웹툰 시장은 이용자 감소 속에서도 코어팬덤 중심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웹툰 시장은 글로벌 MAU 1.57억(-7.1%), 국내 MAU 2400만(-11.1%)으로 이용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콘텐츠 소비가 대중시장 중심에서 코어팬덤 중심 산업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 ④ 문화기관 인사 시스템 논란 확대 → **문화행정 신뢰도 저하**

☞ 퇴직공무원, 대표 선임절차 논란, 기관장 공석 장기화 등

퇴직 공무원 중심 인선과 대표 선임 절차 논란, 기관장 공석 장기화(최대 20개월) 등이 반복되며 문화행정의 전문성과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⑤ 공모 중심 예술지원 구조의 한계 → **창작중심 생태계 마련**

☞ 예술인 활동증명 지연, 지원제도 격년제 운영 논란 등

예술활동증명 신청 지연과 예술인 격년 지원 논란 등으로 지역 예술계 반발이 이어지며, 공모 중심 행정에서 창작 중심 생태계로의 지원 구조 전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 ⑥ 문화 소비 구조 변화 → **대형 공연 중심 소비 vs 개인 취미 소비로 양극화**

☞ 2025년 가계 소비는 증가했지만 문화 소비는 감소(오락·문화 지출 -2.5% 감소), 온라인 하비슈모 확대 등

2025년 가구 소비는 1.7% 증가했지만 오락·문화 지출은 2.5% 감소한 가운데 취미 소비와 온라인 하비슈머는 증가하며, 문화소비가 대형 공연 중심 소비와 개인 취미 소비로 양극화되는 모습이다.

- ⑦ 관계 기반 문화정책 이슈 지속 제기 → **커뮤니티 기반 문화정책**

☞ 외로움, AI 등장으로 인한 공동체 약화, 개인화 사회 등

AI·디지털 시대 속 외로움과 공동체 약화가 확산되면서 서울시 1인 가구 소셜다이닝(4300명 지원) 등 커뮤니티 기반 문화정책이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 정책적 시사점

현재 문화정책 환경은 콘텐츠 산업 집중, 지역 문화정책 구조 재편, 사회문화 변화 대응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화정책은 이제 단순한 산업 성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생태계 전반을 설계하는 정책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제46호) 숫자는 커졌지만 삶은 더 풍요로워졌는가

문화산업과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시민의 실제 문화 체험은 깊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대형 콘텐츠 집중과 체류형 문화 부족 속에서 문화생활의 폭은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 이제 문화정책은 규모와 성과보다 시민의 일상 속 문화 경험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 ○ 콘텐츠가 관광을 만들지만, 체류형 지역관광 구조는 아직 부족

- 콘텐츠가 관광을 움직인다... '왕사남'·'케데헌' 흥행이 만든 여행지도(셀럽미디어, 2026. 03. 02.)
  - 영화 흥행으로 영월 청령포 관광객 5배 증가, 콘텐츠 촬영지 관광 확산
- "숙박비 비싸고 콘텐츠는 부족"... 에어비앤비, 로컬 공유숙박 발굴(디지털타임즈, 2026. 03. 05.)
  - 국내여행 기피 요인 1위 물가(27.9%)... 숙박비 부담 92.5%, 로컬 체험 콘텐츠 부족 해결 위해 공유숙박·앵커콘텐츠 확대 필요
- 대전 찾은 청년들, 성심당·은행동·카페에 지갑 열었다(BreakNews, 2026. 02. 28.)
  - 대전 청년 방문 소비, 성심당·은행동 등 식음료 상권 집중... 당일·1박 목적형 방문 구조, 문화연계 체류형 전략 필요

## ○ 공연시장 성장 속 초대형 콘텐츠 중심의 산업 집중 심화

- "공연 수입만 2조원"... 'BTS노믹스'가 온다(서울경제, 2026. 03. 04.)
  - BTS 완전체 컴백·월드투어로 공연 매출 2조 원, 회당 경제효과 1.2조 원 전망... 'BTS노믹스' 재부상
- "공연시장 역대 최대 매출"...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소비자평가, 2026. 03. 01.)
  - 2025년 공연시장 티켓 653만 매·매출 4,61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 평균 티켓 7만~15만 원 상승 속 선택 부담과 대형작 집중 심화

## ○ 웹툰 이용자 감소 속 코어팬덤 중심 산업 구조 심화

- K팝 닳아가는 웹툰 시장... 라이트유저 떠나고 코어팬덤만 남아(IT조선, 2026. 03. 06.)
  - 웹툰 이용자 감소 속 코어팬덤 중심 구조 심화... 글로벌 MAU 1.57억(-7.1%), 국내 MAU 2400만(-11.1%) 감소

## ○ 퇴직공무원 중심 문화재단 인사 논란... 전문성·절차 공정성 쟁점 확대

- 담양군문화재단, 조용익 대표이사 취임(헤럴드경제, 2026. 03. 12.)
  - 조용익(66) 전 담양부군수 담양군문화재단 제2대 대표이사 취임... 정원·생태·인문 자산 기반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 광도용 수원문화재단 제10대 대표이사(경기일보, 2026. 03. 02.)
  - 광도용 전수원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수원문화재단 제10대 대표 취임(임기 2026~2028)... 문화·관광 플랫폼 강화 추진
- 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 관련 논란에... 제천시, 감사 착수(연합뉴스, 2026. 03. 04.)
  - 제천문화재단 상임이사 3순위 선임 논란, 제천시 선임 절차 감사 착수

## ○ 문화기관 인사 지연·논란 속 전문성 기반 인선 시스템 개혁 요구 확대

- [호외: 문화기관 인사] 문화행정 개혁 없이 전문가 인선 없다(문화정책리뷰, 2026. 03. 03.)
  - 문화기관 인사 논란... 캠프 인사·전문성 논쟁 속 정책 비전 부재와 문화행정 공백 지적
- [내일을 열며] 강수진 단장의 퇴임 선언 이유(국민일보, 2026. 03. 05.)
  -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이 임기 종료 전 퇴임을 선언하며 문체부의 국립예술단체장 인선 지연과 사전 선임 시스템 부재 문제가 다시 제기
- [세종로의 아침] 전문성이 본질이 된다면야(서울신문, 2026. 03. 06.)
  - 국립 예술기관장 공식 장기화(최대 20개월)... 전문성보다 정치성 논란 속 문화예술기관 인선 시스템 개선 요구

## ○ 전통·창작 결합 속 K-공연예술의 세대 확장과 글로벌 진출 모색

- '힙'한 콘텐츠로 변신한 봉산탈춤의 윈윈 전략(이데일리, 2026. 03. 03.)
  - '에피소드:2, 탈춤' 공연(1.22~2.1), 봉산탈춤에 힙합·파티형 무대 결합... 전통예술 MZ세대 확장 가능성 제시
- "영국에선 배우가 울면 관객은 안 운다"... 올리비아상 작가·연출가가 본 K-뮤지컬의 미래(세계일보, 2026. 03. 02.)
  - K-뮤지컬 '더 라스트맨', 5.8~6.6 런던 사우스워크 플레이하우스 공연... 한국 창작 뮤지컬 웨스트엔드 진출 가능성 주목

- 질문 품은 무대... '무담시 공연예술창작소' 출범(광주매일신문, 2026. 03 .04.)
  - 김하정 연출가, 극단 유포씨어터 25년 창작 기반 '무담시 공연예술창작소' 출범·창작뮤지컬 청소년 예술교육 결합 플랫폼 추진

### ○ 미술시장 대중화 실험 확대...아트마켓·환불제 등 새로운 유통 모델 등장

- [문화도시 첨병 - 울산문화예술인]일상과 더 가까이... '100달러 아트마켓' 기획(경상일보, 2026. 03 .03.)
  - 울산 작가 조철수 14만원 '100달러 아트마켓' 기획...205명 작가 820점 전시, 예술의 대중화·기부 구조 실험
- "1년 내 반환 시 80% 환불"...미술시장 새 실험 '아트서울'(뉴시스, 2026. 03 .04.)
  - 온라인 미술플랫폼 '아트서울', 1년 내 반환 시 80% 환불 도입... 65명 작가·1000여 점 판매 실험

### ○ 예술지원 제도 혼신 속 공모 중심 지원 구조와 행정 운영 개선 요구 확대

- 이종관 인천문화재단 대표 "예술인 격년제 지원 검토"에 예술단체 반발(인천투데이, 2026. 03. 03.)
  - 인천문화재단 예산 27억 삭감 속 '예술인 격년제 지원' 검토 논란, 지역 17개 예술단체 대표 사퇴 요구
- 184호\_예술활동증명 대란(오늘의서울연극, 2026. 03.)
  - 예술활동증명 신청 수만 건 지연, 온라인 다수결 심의 등 제도 운영 개선 필요 지적
- 지금의 지원 구조로는 울산 문화예술계 미래 없다(경상일보, 2026. 03. 03.)
  - 울산 문화예술계 공모·상주단체 중심 지원 구조 비판, 창작 부재·신진 유출 초래... 평가방식·지원제도 개선 필요 지적

### ○ 예술인 복지 확대 요구 속 지역별 지원 격차와 제도 실효성 논쟁

- 숨 쉬는 예술생태계 - 전문성 회복과 예술인 기본소득의 제도화(금강일보, 2026. 03. 03.)
  - 예술행정 전문성 회복과 예술인 기본소득·다년 지원제 도입 필요성 제기, 공모·정량평가 중심 구조 개선 주장
- 올림픽엔 수백억 예산 '속전속결', 예술인 복지기금은 3년째 '0원'(전북일보, 2026. 03. 03.)
  -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기금 출연금 0원, 이자 17억으로 실적 채우기 논란
- 인천문화재단, 지역 예술인 대상 종합 지원 본격 시동(경인신문, 2026. 03. 04.)
  - 인천문화재단 예술인 건강검진·심리·법률 상담 지원, 30만 원 검진 등 복지사업 확대
-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창작활동에 도움... "지속 필요" 97%(뉴스1, 2026. 03. 03.)
  -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연 50만 원) 효과 조사, 응답자 97% 지속 필요·95.9% 경제적 안정 도움 평가

### ○ 발레계 엘리트 교육 구조 속 홈스쿨링 증가 현상

- 한국 발레계에서 홈스쿨링 학생의 증가 이유는?(국민일보, 2026. 03. 03.)
  - 한국 발레계 홈스쿨링 증가, 경희대 발레전공 12명 중 7명 홈스쿨링

### ○ 레지던시 기반 창작지원과 국제교류 확대 추진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2026 국내·외 레지던시 입주작가 공모(경기신문, 2026. 03. 03.)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레지던시 공모, 동탄 레지던시 10명(팀)·파리 시테 레지던시 1명 선발, 3개월 해외 창작 지원

### ○ 문화 인프라 확대 속 지역 문화시설 구축과 운영 기반 과제 부각

- "울산만 없는 공립 문학관"...울산문학관 건립추진위 공식 출범(울산매일UTV, 2026. 03. 03.)
  -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립 문학관 없는 울산, '울산문학관 건립추진위' 출범...자료 아카이브·교육·전시 기반 구축 추진
- [김정화의 크로노토프] 거대함 숭배, 위험한 전문가들(부산일보사, 2026. 02. 26.)
  - 대형 아레나 건립 중심 문화정책 비판·공연 인프라 확대 속 무대 전문인력·안전체계 부재와 예술노동 구조 개선 필요 제기
- 자체 설비 vs 지역 열원 '전력 갈등'... 인천공항 미술품 수장고 개발 '차질'(경인일보, 2026. 03. 03.)
  - 인천공항 미술품 수장고 사업, 냉난방 전력 공급 방식 갈등으로 실시계획 승인 지연...개장 2028년 이후로 연기

### ○ 전통시장 기반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 문화거점 확대

- 전주남부시장 복합문화공간 '모이장' 개관(전라일보, 2026. 03. 03.)
  - 전주 남부시장 복합문화공간 '모이장' 개관, 1,424㎡ 규모 문화·판매·전시 결합 공간 조성

### ○ 가계 소비 증가 속 오락·문화 지출은 실질 감소

- 2025년 4분기 및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국가데이터처, 2026. 02. 26.)

- 2025년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293.9만원(+1.7%)이나 오락·문화 지출은 실질 기준 -2.5% 감소

#### ○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속 문화예산 감소로 지역 프로그램 축소 우려

-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4월 1일부터 시행(대전일보, 2026. 03. 03.)
  - '문화가 있는 날' 매일→매주 수요일 확대, 4월 1일 시행
-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 활짝 인천예술인 맞춤형 급감에 울상(기호일보, 2026. 03. 05.)
  - '문화가 있는 날' 매주 확대에도 인천 문화예산 1,832억→1,227억 감소...시민참여 공연·예술인 프로그램 축소 우려

#### ○ 삶 만족도 정체 속 여가 양극화...수동형 소비와 취미 소비 확대 공존

- 한국인 삶 만족도 OECD 최하위... 자살률·상대적 빈곤율 상승(이슈인팩트, 2026. 03. 05.)
  - 한국 삶 만족도 6.4점(OECD 33위), 소득·여가는 개선됐지만 독거노인 23.7%, 자살률 29.1명 등 공동체·건강 지표는 악화
- '부산 신노년 여가생활 뜯어보니...이상은 '스포츠' 현실은 '유튜브'(국제신문, 2026. 02. 26.)
  - 부산 신노년 여가활동 1위 TV·영상 시청 36.7%...이상적 여가는 스포츠 등 참여형 활동 선호
- 서울시민 지난해 여가생활 만족도 하락(노컷뉴스, 2026. 03. 04.)
  - 서울서베이 결과 여가만족도 5.67점 하락...주4.5일제 찬성 54.5%, AI 이용경험 86.3%
- 취미에 적극 투자하는 하비슈머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쏠린 이유(문화일보, 2026. 03. 04.)
  - 취미·창작 활동에 적극 소비하는 '하비슈머' 증가...문화예술 여가 참여율 1.8%p 상승

#### ○ AI·고립 시대, 외로움 확산 속 커뮤니티 기반 관계정책 부상

- [편집장레터] 커뮤니티가 미래다(소셜인팩트뉴스, 2026. 03. 03.)
  - AI 시대 개인화·자동화 확산 속에서 느슨하지만 강한 연대와 협업을 만드는 '커뮤니티'가 새로운 사회·경제 조직 모델로 부상
- 위로와 위험 사이... SNS '우울증 커뮤니티'에 모이는 10대들(국민일보, 2026. 03. 04.)
  - SNS 우울증 커뮤니티 확산...10대 1만명 이상 모임여 위로 공간이자 자해·약물 정보 확산 위험 공존
- "돈 없어도 행복하다는 옛말"...'쓸쓸함'마저 빈부격차(아시아경제, 2026. 03. 03.)
  - 소득 격차가 '외로움'에도 영향...월 100만원 미만 가구 외로움 체감 57.6%로 평균보다 높아
- 서울시, 올해 '1인 가구 소셜다이닝' 4300명 지원(뉴스핌, 2026. 03. 04.)
  - 서울시, 1인 가구 관계망 형성 '소셜다이닝' 확대...중장년·청년 등 연 4300명 지원

#### ○ 성인 독서율 역대 최저...AI·숏폼 시대 '깊이 읽기' 위기

- 성인 10명 중 6명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20대 독서율은 소폭 상승(경한신문, 2026. 03. 06.)
  - 성인 독서율 38.5% 역대 최저...10명 중 6명 '무독서', 평균 독서량 2.4권. 20대 독서율은 75.3%로 소폭 상승
- 지금 몰입하여 읽고 있나요?(한겨레, 2026. 03. 04.)
  - AI 요약·숏폼 확산 속 '깊이 읽기' 약화...공백을 견디는 몰입형 독서와 서사 읽기의 가치 재조명

#### ○ AI 시대 대응...창의·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 확대

- 마윈, AI 시대 맞아 창의력 교육 강조... "놀이와 예술로 미래 준비"(SP스페셜타임스, 2026. 03. 04.)
  -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AI 시대 대비 교육 방향 제시...놀이·예술·운동 중심 창의력 교육 강조
- 부산문화재단, 부산 시민의 삶 바꾼다...'15분 도시' 특화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더센뉴스, 2026. 03. 05.)
  - 부산문화재단 47개 단체에 8.5억 지원 '15분 도시' 문화예술교육 확대...2025년 시민 1만1764명 참여 효과 확인
- 인천 부평구 문화재단, 2026년도 문화예술교육 사업 본격 운영(기호일보, 2026. 03. 03.)
  - 부평문화재단 어린이연극학교·디지털뮤직랩 등 4개 문화예술교육 사업 본격 운영...AI·3D프린팅 등 디지털 예술교육 확대

#### ○ 지방소멸 대응 정책 실험...재정 약화 속 단기 인구유입 한계 노출

- "행정통합 시대, 문화산업 기반 창업도시로 도약해야"(진일보, 2026. 03. 03.)
  -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비 정책토론회, 문화자산→콘텐츠→산업→창업 구조 전환 제안
- 90% 웃돌던 '부촌'의 몰락?...경기 중부권, 재정자립도 '반토막'(경기일보, 2026. 03. 04.)
  - 경기 중부 도시 재정자립도 90%→30~60%대로 하락...제조업 이탈·복지 증가 영향
- 1인당 50만 원 약효 끝났다..두 달 만에 빠진 '인구 거품'(MBC충북, 2026. 03. 06.)
  - 충북 일부 지자체 1인당 50만 원 지급에 단기 전입 급증했지만 두 달 만에 괴산 -519명 등 '주소지 쇼핑' 확인

- **정원·마을 기반 생활문화형 도시재생 확산**
  - 진주시, 곳곳 숨은 우수 개인정원 발굴... "지역문화 활성화" (뉴시스, 2026. 03. 03.)
    - 진주시 우수 개인정원 8곳 발굴, 최대 100만 원 지원... 정원문화·관광자원 확대 추진
  - 수원시 '도시재생형 마을' (기호일보, 2026. 03. 04.)
    - 수원 도시재생형 마을 확산, 주민 주도 자치계획·마을길·문화관광 자원화 추진
- **지역 문화정책 확대 속 생태계 구조개편·실행력 과제 부상**
  - [김나리의 문화이야기] 경남 문화예술 2.0시대, 문화생태계 살아있나 (경남도민일보, 2026. 02. 26.)
    - 경남 '문화예술 비전2030' 2,352억 투자 추진·단체 중심 지원·중간매개 인력 부족 등 문화생태계 구조개편 필요 제기
  - 작년 첫 '문화현장' 선포한 제주도... "이행 구체화" (한라일보, 2026. 03. 02.)
    - 제주도 문화현장 이행 본격화... 12개 분과·138명 원탁회의 통해 문화정책 12개 의제·38개 핵심과제 추진
- **지자체 캐릭터 경쟁력... 세계관 기반 지역 IP·관광 전략 부상**
  - [커버스토리] 지자체 캐릭터, 더 귀여워지고 세계관 확장해야 경쟁력... 정책 뒷받침도 필수 (매일신문, 2026. 03. 05.)
    - 지자체 캐릭터 경쟁력 위해 '귀여움·세계관 확장' 전략 필요... 캐릭터산업진흥법 통해 지역 IP·관광 연계 정책 지원 추진 필요
- **로컬콘텐츠 재구조화와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 활력 모색**
  - [강원연구원] 로컬100 2기 축소를 기회로: 강원형 로컬콘텐츠 경쟁력 재구조화 전략 (스포츠서울, 2026. 03. 04.)
    - 로컬100 2기 강원 20→8곳 감소, 통합브랜드·산업화 전략 재구조화 필요
  - 상점 찾고 주민 교류, '일상 속 관광'의 기적... 강화 청년 돌아왔다 (서울신문, 2026. 03. 04.)
    - 강화도 고품격을 40% 지역, 2~5박 체류형 '잠시점' 프로그램으로 청년 유입·정착 모델 주목
- **도시 공간 속 청년 커뮤니티 거점으로 진화한 세운상가 도서관**
  - 거쳐간 사람만 131명, 세운상가 속 도서관의 정체 (ohmyNews, 2026. 03. 03.)
    - 서울 세운상가 '호락호락 도서관', 진로 전환 청년 지원 모임 운영... 지난해 이후 131명 참여
- **저출생·정주격차 속 초등학교 입학생 급감과 원도심 공동화 심화**
  - 올해 '입학생 0명' 초등학교 전국에 210곳... 5년 전보다 81% 늘어 (조선일보, 2026. 03. 03.)
    - 입학생 0명 초등학교 210곳, 5년 전 116곳 대비 81% 증가... 저출생 여파 확대.
  - 예비 학부모 초등학교 선택 기준은 '학교'가 아니었다. (남도일보, 2026. 03. 05.)
    - 광주 원도심 초등학교 신입생 급감(서석초 6명)... 학원·주거·안전 등 정주여건 격차로 학부모 신도심 이동 가속
- **빈곤 원인 인식 변화... 개인 책임론 확대 속 복지 역할 논쟁**
  - 국민 10명 중 9명 "빈곤 원인은 개인 책임감·자기관리 노력 부족 때문" (인사이트, 2026. 03. 03.)
    - '2025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89.7% "빈곤 원인은 개인 노력 부족" 인식... 정부 지원 축소 반대 51.6%
- **문화예술 후원 플랫폼 도입... 시민 참여형 문화재원 확대**
  - 평택시문화재단,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후원 플랫폼 'WAT' 공식 출범 (경인매일, 2026. 03. 03.)
    - 평택시문화재단 시민·기업·재단 3주체 참여 문화예술 후원 플랫폼 'WAT' 출범... ARS·기부키오스크 등 참여 채널 구축
- **문화산업·정책전략 결합한 도시문화 플랫폼 전환 모색**
  - [문화칼럼] 문화로 빛난 여정, 창의로 여는 내일 (중부매일, 2026. 03. 03.)
    - '청주 문화산업단지·문화제조창 기반, AI·영상·공예 중심 글로벌 문화도시 전략 제시
  - 부천문화재단, 문화정책연구 이슈페이퍼 '문화+a' 발간 (중부매일, 2026. 03. 03.)
    - 부천문화재단 정책보고서 '문화+a' 발간... 거버넌스·실행체계·지역콘텐츠·ESG 등 4대 전략으로 도시문화 플랫폼 전환 제시

### ○ 퇴근 후 업무연락 제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 논의

- "퇴근 후 카톡 금지, 지키면 인센티브 지급"... 입법 추진(인사이트, 2026. 03. 04.)
  - '퇴근 후 카톡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입법 추진, 준수 기업 인센티브 제공

### ○ 6.3 지방선거 문화도시 공약 경쟁 속 내용·관점 모두 빈약한 선언형 공약

-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문화예술이 산업이 되는 세종" 제3차 공약 발표(국제뉴스, 2026. 03. 03.)
  - 문화산업 매출 1.5조 원·일자리 1만 개 창출 목표 '문화예술 산업도시 세종' 공약 발표
-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2차 공약... "광양읍 문화예술 중심지로 육성"(노컷뉴스, 2026. 03. 06.)
  -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광양읍 문화예술특구·창작레지던스·버스킹 거리 조성 등 문화예술 중심 도시 공약 제시

### ○ 건축물 미술장식 의무제도, 설치 방식과 공공성 재검토 필요

1995년 의무화 이후 전국적으로 2만여 개 이상의 작품이 설치되었으며, 최근 2021년 777건, 2022년 804건, 2023년 830건 등으로 매년 약 800건 내외의 새로운 작품이 설치되고 있음

#### ☞ 공공미술, 도시와 생활공간의 문화가치를 높이는 생활형 문화 인프라

- 거리 조각·구불 의자 "도시가 즐거워"(한겨레, 2019. 10. 20.)
  - 베트남전 추모조형물·게이츠헤드 '북의 천사' 등 시민 참여형 공공미술, 도시 이미지와 문화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문화 인프라로 주목
- "아파트 내 미술품, 입주민 공감·만족 이끌어내야"(아파트관리신문, 2019. 04. 10.)
  - 아파트 미술장식품 입주민 공감·만족 고려한 설치와 환경 조화 필요

####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논란...공공성·투명성 확보 위한 제도 개편 요구

- 진정한 공공미술을 갈망하다(디자인정글, 2012. 02. 15.)
  -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개편으로 1% 작품 설치 또는 0.7% 기금 선택제 도입, 공공미술 질·관리 개선 추진
- '건축물미술작품제도' 폐지가 답이다(metro, 2023. 11. 01.)
  - 건축물미술작품제도 리베이트·특정업체 독점 등 비리 구조 속 공공성 상실로 제도 폐지 필요성 제기
- '미술품 설치'까지 떠맡는 건설사...발주처는 발뺌(대한경제, 2023. 10. 12.)
  - 공공미술 1%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주처가 설치 책임을 건설사에 전가하는 관행 논란

####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공정한 선정과 지역 예술 생태계 반영 과제

- 건축물 미술장식품 제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경남신문, 2026. 02.25.)
  - 연면적 1만㎡ 의무설치 제도, 수도권·외부 작가 쏠림...지역 작가 우선·공개공모 확대 촉구
- [아르떼 칼럼] 1% 예술 제도 뒤에 숨은 과제들(한국경제신문, 2025. 04. 25.)
  - 공공미술 '1% 예술제도', 작가선정 불투명·관리 미흡 등 공공성·지속성 과제 제기

####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 공정성 확보와 관리체계 정비 추진

- 김국기 충북도의원, '충북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방안 마련(천지일보, 2025. 04. 15.)
  - 김국기 충북도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기금출연 의무 등 관리기준 담은 조례안 발의
-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공정성 높인다(인천투데이, 2022. 02. 24.)
  -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공정성 논란에 TF 구성...작가정보 비공개 등 제도 개선 추진
- 경기도 건축물 미술품 심의 문턱 여전히 높아...절반이상 탈락(연합뉴스, 2020. 01. 09.)
  -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강화 이후 76건 중 59% 탈락...공정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연계 예술인 창작공간 활용 방안은 불가능한가?

- 1분기 전국 상가 공실률 ↑...세종 중대형 상가 4곳 중 1곳 '공실'(연합뉴스, 2025. 04. 24.)
  - 1분기 전국 상가 공실률 상승(중대형 13.2%)·임대료 하락...세종 중대형 상가 공실률 25.2% 최고,
- 원도심 공동화 해법으로 떠오른 '빈 점포 콘텐츠화' 전략(AI Times, 2026. 01. 15.)
  - 순천 중앙동 빈 건물 18동에 콘텐츠 기업 28개 입주... '빈 점포 콘텐츠화'로 원도심 산업·문화 재생 추진

**(한주를 정리하며) 숫자는 커졌지만 삶은 더 풍요로워졌는가**

최근 문화예술 분야를 둘러싼 지표들은 분명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공연시장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초대형 콘텐츠는 수조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새로운 여행지도를 만들고, 지역마다 문화도시와 문화산업 전략이 경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문화는 더 이상 주변 정책이 아니라 산업과 관광,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겉으로 보면 문화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훨씬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숫자가 커진 만큼 우리의 삶도 더 풍요로워졌는가. 문화산업의 규모와 정책 프로젝트는 확대되고 있지만, 시민의 실제 문화 경험이 그만큼 깊어지고 있는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연시장만 보더라도 양적 성장과 체감 사이의 간극이 나타난다. 티켓 판매와 매출은 증가했지만 티켓 가격 상승과 초대형 콘텐츠 집중 현상은 관객의 선택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일부 대형 공연은 막대한 경제효과를 만들어내지만 공연 생태계는 점점 소수 작품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도 보인다. 웹툰 산업 역시 규모는 유지되고 있으나 이용자는 감소하고, 라이트 이용자보다 코어 팬덤 중심의 소비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현상은 관광에서도 이어진다. 콘텐츠가 관광을 움직이는 힘은 분명해졌지만 방문의 대부분은 여전히 짧은 소비에 머물고 있다. 당일 방문이나 인증형 소비가 중심이며 지역에 머물며 문화를 경험하는 체류형 구조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 콘텐츠는 사람을 끌어오지만 그것이 지역의 시간과 경험으로 이어지는 설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의 일상 속 문화 기반에서도 드러난다. 가계 소비는 증가했지만 오락·문화 지출은 실질적으로 감소했고, 성인 독서율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여가 활동 또한 참여형 문화 활동보다 영상 시청과 같은 수동형 소비로 기울어지고 있다. 취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일부 소비층이 등장하고 있지만, 문화생활 전반이 두터워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화시장은 성장했지만 시민의 문화 체감은 오히려 얕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사회 구조의 변화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복합적으로 만들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여가 환경 확대는 문화 향유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개인화된 콘텐츠 소비는 늘어나고 있지만 공동체 기반의 문화 경험은 점점 줄어드는 모습도 나타난다. 문화가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보다 개인화된 소비 형태로 이동할수록, 문화가 지닌 사회적 기능 역시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러한 흐름은 문화정책의 방향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문화정책의 성과를 방문객 수나 매출,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과연 충분한가 하는 문제다. 문화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시민의 삶 속에서 문화가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문화는 단순한 산업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게 하고 공동체를 이어주는 사회적 기반이다. 문화가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되고 지역과 관계 속에서 축적될 때 비로소 문화정책의 성과는 삶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화의 숫자는 분명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숫자가 시민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때다.

**문화의 성장은 결국 시민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